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6~12/2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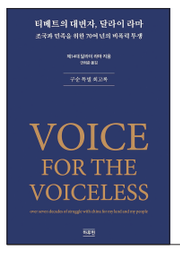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포교사고시 예상문제집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주)조계종출판사
2	우리말로 읽는 부처님 말씀 능엄경	원조 각성	비움과소통
3	고광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	고광	불광출판사
4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보만	불광출판사
5	육조단경	김현준	효림
6	AWAKENING	VEN.POMNYUN SUNIM	정토
7	불교성전	불교성전편찬위원회	조계종출판사
8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험	우룡	효림
9	붓다의 명상법	이자연	소명출판
10	사유하는 불교 성지 순례	비구 허정	어의운하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극락의 경전	한보광 옮김	민족사
2	업이란 무엇인가	히라오카 사토시	운주사
3	요가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4	프리스틴 마인드	올갠 초왕 린포체	운주사
5	수행초탈인가 치유인가	박찬욱 기획/한자경 편집	운주사
6	법구경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7	법정스님이 세상에 남긴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	법정/김계윤 그림	불교신문사
8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9	체계불학	김성철	오타쿠
10	우리는늘바라는대로이루고있다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침묵을 깨운 자비의 증언



티베트의 대변자,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지음
안희준 옮김
하루헌 / 3만원

말 못 하는 이들 대신한 목소리
망명정부 수립 과정 첫 공개
"폭력보다 강한 자비" 증명
분열·갈등 우리 사회에 메시지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4살에 가족의 품을 떠난 소년은 열여섯 살에 전쟁을 맞닥뜨렸고 스물다섯에 망명을 택한 이후 75년에 걸쳐 비폭력을 실천하고 있다. 제14대 달라이라마 텐진 갸초의 구순(九旬) 기념 회고록 〈티베트의 대변자, 달라이라마〉는 억압받는 공동체를 대신해 침묵을 깨뜨린 '양심의 기록'이다.

달라이라마는 책에서 왜 비폭력을 선택했는지, 공동체의 정체성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고뇌와 결단을 내려야 했는지를 진솔하게 보여 준다.

책은 1950년 중국 인민해방군의 티베트 침공에서 시작한다. 열아홉 살의 달라이라마가 마오쩌둥과 마주한 베이징 회담, 1959년 인도로 탈출한 망명 과정, 다람살라에서의 망명정부 수립과 교육·종교 체계 재건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특히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중국 지도부와의 협상 과정과 17개 항 협정을 둘러싼 압박, 해외 정부와의 접촉 등 당시의 내밀한 고민이 포함돼 있어 현재 티베트 문제를 이해하는 1차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개인사와 정치·외교, 문화적 결단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달라이라마는 자신과 공동체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기록한다.

달라이라마는 책 전반에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강조한다. 폭력과 억압이 극단으로 치닫던 시대, 왜 대결이 아닌 비폭력을 택했고 어떤 대안과 갈등 속에서 결단을 내렸는지를 서술한다.

후반부에서 달라이라마는 환생 체계에 대해 "제도의 존속 여부는 티베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새로운 달라이라마는 자유세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달라이라마는 구순 회고록인 이 책에서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던 중국 지도부와의 협상 과정을 공개했다. 사진은 중국 북경에서 열린 티베트 설날 기념행사. 왼쪽부터 저우언라이 총리, 판첸 라마, 마오쩌둥 주석, 달라이라마, 류사오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위원장. 사진 제공=하루헌

회고록은 과거의 기억에 머물지 않고 언어·문화 상실의 위험, 티베트 고원의 군사화와 환경 파괴, 디아스포라 2·3세대의 정체성 위기 등 현재의 위기들을 진단한다.

5권째 달라이라마 책을 펴낸 배정화 하루헌 대표는 "이 책은 가혹한 정치 현실 속에서 수행자의 마음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으로, 이는 분열과 갈등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책을 옮긴 안희준 번역가는 달라이라마 한국어판 공식 홈페이지 번역과 감수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문의 의미와 어조를 섬세하게 전달했다.

달라이라마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티베트인들이 자신의 조국에서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 티베트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평생 애써 온 저의 노력이 이 책에 담겨 있다"며 "이 책이 티베트 민족의 자유를 향한 여정, 그리고 비폭력과 대화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 시대 경전" 불교출판문화상 시상식

대상 〈역사 속 한국비구니〉 수상
불서읽기모임 2곳에 독자상 수여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윤창화)는 11월 25일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제22회 불교출판문화상 및 올해의 불서 10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

윤창화 회장은 인사말에서 "불교출판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대의 언어로 재해석해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문화부장 성원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여러분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한 권의 불서는 이 시대의 새로운 경전"이라며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이 불교출판문화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병두 심사위원(종교평화연구원장)은 "대상 수상작인 〈역사 속 한국비구니〉는 내용이 탄탄하고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많은 분의 원력이 더해진 책"이라고 심사평을 밝혔다.

〈역사 속 한국비구니〉의 집필자 중 한 명인 전영숙 연세대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앞으로 이 책이 비구니 승단 관련한 문학 작품과 영화, 미술 등에서 무궁무진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한길번역상은 〈유식이십론〉(강형철·유리·구미숙 역주, 씨아이알), 붓다북학술상은 〈대승불교는 어떻게 발전했는가〉(한지연 지음, 동국대출판문화원), 보덕전법상은 〈붓다의 수첩-담마〉(성찬 스님 지음, 수류산방)가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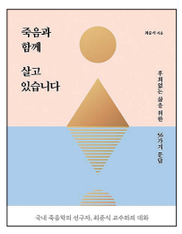
입선에는 〈거룩한 불편〉(유정길 지음, 모과나무), 〈바위에 새긴 미소〉(문영숙 글, 김태현 그림, 현암주니어), 〈일단 앉아볼까요〉(페마 초드론 지음, 한문화), 〈젠더를 넘어서는 불교〉(리타 그로스 지음, 운주사)가 선정됐다.

올해 신설된 '독자상'은 불서 읽기 모임 '붓다와 함께 떠나는 책 여행'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책 읽기 소모임 '보리수아래'에게 주어졌다.

여수령 기자

새로 나온 책

후회 없는 삶을 위한 56개 문답



죽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최준식 지음
중앙북스
1만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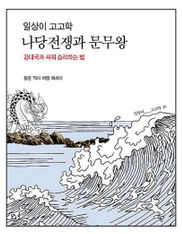
국내 죽음학의 선구자 최준식 교수의 대화

국내 죽음학의 선구자인 저자가 56개 문답으로 삶과 죽음의 의미를 풀어냈다.

그간의 저서가 '죽음학' 학술서였다면 이 책은 대화록에 가깝다. 자살, 인간관계, 종교, 유교문화, 마음공부 등 '죽음의 그림자 아래 놓인 다양한 주제'를 독자와 대화하듯 담담하게 들려준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까요, 이별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의 질문에 답하며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살아가야 하는 진정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전한다. 저자는 말한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삶을 가장 깊이 공부하는 유일한 길이다."

삼국통일 현장에서 읽은 화쟁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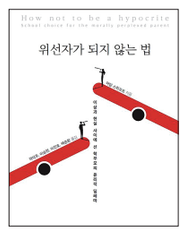


나당전쟁과 문무왕
황윤 지음
책읽는고양이
1만9800원

7세기 신라 문무왕은 최강국 당나라에 맞서 협력과 대립이라는 양날을 국익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나당전쟁 승리와 삼국통일이라는 국가적 대업을 성취할 수 있었다.

백제와 고구려 점령에 이어 나당전쟁 승리에 이르기까지를 그려 내는 이 책은 나당연합군의 집결지였던 덕적도와 연천 호로고루성, 파주 칠중성 등의 현장을 찾아 역사를 그려 낸다. 또 대립과 분열을 종식하고 화합을 이루고자 했던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을 살핀다. 저자는 불안정한 국제 질서 속에서 국가적 도약 에너지를 가득 품고 있는 지금이, 나당전쟁 승리의 역사를 재인식할 적기라고 말한다.

미래 교육을 위한 선택과 희망



위선자가 되지 않는 법
아담 스위프트 지음
곽덕주 외 옮김
살림터
1만9000원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길 원한다. '맹모삼천지교'는 이러한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대변하는 한편, 우리 교육 현실을 꼬집는 비유로 쓰인다.

영국의 정치철학자인 아담 스위프트는 이 책에서 교육 정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불합리한 현실에 있으며 그 모순을 조금이라도 줄여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러 준다.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는 부모들의 자식 교육에 대한 욕망과 그 양상을 솔직하게 들여다봄으로써, 절망적이고 위태로운 공교육의 현실에서 '각자 그리고 다 같이' 바른 선택지를 찾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을 다스려라!

경쟁이 이념이 되고 욕망이 미덕이 된 시대,
붓다와 공자가 남긴 지혜의 말씀은 나를 지키는 단단한 무기가 된다!

참회(懺悔) — 자성(自省)
항상 잘못을 경계하며 스스로 반성하고 참회하라. 이것이 허물과 불화 없이 즐거운 인생을 사는 비결이다.

업(業) — 실천[行]
한 번 착한 일을 했다고 복이 오고, 한 번 나쁜 짓을 했다고 벌이 오지는 않는다. 쌓이고 쌓여서 결과로 나타난다.

중도(中道) — 중용(中庸)
지나친 것이나 모자란 것이나 모두 치우친 것이다. 균형 잡힌 태도야말로 행복의 지름길이다.

방편(方便) — 권도(權道)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삶의 모범답안은 없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원만한 지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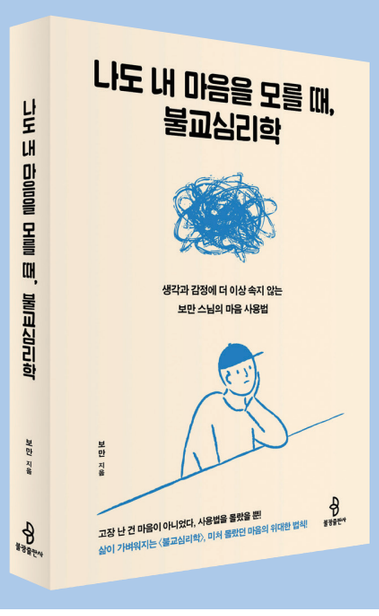
붓다와 공자가 마주한
인생독법
人生讀法
임종욱 지음
312쪽 | 19,000원

삶이 가벼워지는 〈불교심리학〉,
미처 몰랐던 마음의 위대한 법칙!

자꾸만 뚝딱거리는 내 마음,
고장 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사용법을 몰랐을 뿐이었다!

유튜브 '명강의'로 입소문이 난
〈불교심리학〉
★★
웃음으로 시작해 깨달음으로 끝나는
마음공부, 그 현장의 후기

"쇼츠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보물 발굴한 기분이에요!" _ oo*****
"마음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것이었군요!" _ gr*****
"늦은 시간 잠을 미루며 듣게 되는
명강의입니다" _ c8*
"보만 스님 강의는 삶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_ el******



★☆★
화제의
베스트셀러!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생각과 감정에 더 이상 속지 않는
보만 스님의 마음 사용법

보만 지음 | 288쪽 | 19,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